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Qatar keeps options open in huge South Korean yard LNG slot deal

카타르가 LNG선 100+ 건조 슬롯(Slot) 예약 후, 첫번째 확정 발주가 올해 안에 이뤄질 전망이라고 보도됨. 2021년으로 지연될 가능성도 남아있으나, LNG선의 인도는 2023년 4분기부터 시작될 예정이라고 보도됨. 전 일 발표 이후에도 구체적인 선박 수와 선가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됨. (TradeWinds)

Supermajors bet on Brazil but ask for more competitiveness

IOC(International Oil Company)들은 저유가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이 여전히 업스트림(upstream) 투자를 위한 핵심 선택지라고 밝힘. 동시에 Top Oil Major들은 브라질이 자국의 지정학적 이점을 이용해서 해외 자본을 유치하는 정도의 노력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경고함. (Upstream)

두산重, 코로나19 충격 인도법인에 2천억원 긴급자금 지원

두산중공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자금난을 겪는 인도 자회사에 2천억원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했다고 보도됨. 두산그룹은 채무상환을 위해 두산솔루스 매각 등의 자구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날 열린 두산솔루스 매각 입찰은 미지근한 분위기였던 것으로 알려짐. (연합뉴스)

Iran takes its fight to the US with tanker flotilla to Venezuela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 국적의 PC선이 베네수엘라에 도착하면서 카리브해 지역이 미국-이란 간 분쟁의 새로운 장소로 부상했다고 보도됨. 월요일 50,100DWT급 이란 국적 탱커 5척이 베네수엘라 해역에 들어서는 과정에서 미국 해군의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공개됨. 미국 정부 측은 이란과 베네수엘라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입장문을 밝힘. (TradeWinds)

컨테이너선 발주량 11년 만에 최저 기록

올해 신조 컨테이너선 발주 물량이 1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라고 보도됨. 5월 말 전세계 컨테이너 선대는 5,278척, 2,270만TEU로 올해 누계 발주량은 83척으로 전년동기 수준의 56% 수준이라고 보도됨. 올해 말 선복량은 5,370척, 2,340만TEU로 +3.5% 증가할 전망이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Hapag-Lloyd, LNG 추진시스템 개조 공사 연기

Hapag-Lloyd는 COVID-19 영향으로 15,000TEU급 Sajir호(2014년 건조)를 LNG추진 시스템으로 개조하려던 계획을 9월 말까지로 늦췄다고 보도됨. 회사측은 아예 이번 기회에 선박 연료와 관련된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짐. 처음으로 LNG추진 시스템으로 개조하려던 계획은 물론 기존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도 재검토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도됨. (선박뉴스)